

부요함 가운데 사는 습관 만들기

빌립보서 4장 10-13절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tro. - 부요함이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습관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요함 가운데 사는 습관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산다는 것이 가진 것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습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힌 몸으로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빌립보의 교인들이 과장된 자기 암시쯤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너희를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나눴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바울의 삶에 ‘습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배웠다’다는 말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 ‘have learned’로 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유함’과 ‘부요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전 서부 성결교회 조종건 목사의 글에 참 좋은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인색하면 자기 영혼은 죄수가 되고, 자기 육체는 감옥이 됩니다. 반면에 인색한 마음의 한 부분을 허물면 비로소 내 영혼은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부요함을 맛보게 됩니다.
‘부유함(being wealthy)’과 ‘부요함(being rich)’은 다릅니다. 돈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합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a matter of finance)’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a matter of relation)’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파는 것(buy and sell)’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what he has)’으로 규정되지만 부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who he is)’로 규정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바울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자신이 ‘부유’하지 않지만 ‘부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의 습관의 비결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연민이 아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을 애써 외면하려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한 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기 암시하듯 ‘적극적인 사고’를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부유함’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습관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 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이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자기연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신을 바라볼 때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기연민’(self-pity)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마음 보좌에 둡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자기연민’에 대하여 한 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늘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니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이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느끼는 갈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비참합니까?

‘자기 연민’은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입니다.

손성찬 목사님이 쓴 [일상의 유혹]에 보면 ‘자기연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옆에서 누군가 죽어 나가도 당장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게 우리다.

이를 너그럽게 인정하더라도, 가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시에만 집중하곤 한다.

‘자기연민’이랄까? 어떤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존감이 끝없이 하락하는 시기와 상태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유혹이다. 자기 사연을 부풀린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는 어느새 ‘대못’으로 바뀐다. 누가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인 줄 알겠다. 자기감정도 부풀려진다. 십자가의 대못을 로마병정들이 일부러 내리친 것처럼, 누가 보면 누가 일부러 나 죽으라고 내리친 줄 알겠다.

‘자기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할 때 누리는 풍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면 풍성함이 사라지고 자기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부요함을 고백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런 면에서 시편 127편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2절 (새번역성경)

1.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2.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팀의 김성권 장로님이 이런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것, 이 삶이 어찌 헛되다고 말씀하시나?

그 까닭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깨닫는다.

한 번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몰입하는 것이 자기연민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 자기연민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문제 앞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자기연민은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자신감과도 관련 있다는 생각이 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해결 능력이 없는 나를 발견할 때가 더 많다.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앞서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

문제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뒤에 서는 지혜를 배우기를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5월 10일 묵상에서 챔버스가 했던 말도 위의 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셨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좋은 성품을 만드는 훈련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챔버스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습관’(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묵상 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챔버스는 본문에서 ‘자기연민’은 영적으로 비참한 사치에 빠진 상태이며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누

리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실은 자기연민이 죄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니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다는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자기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연민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을 위로하라고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자신을 위해 보상하라고 조언하며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이러한 말에 공감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끔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기연민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감정의 러더코스터를 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끝까지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 묵상하며 고민해 보았는데, 챔버스는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이 습관을 통해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의 샘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요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하여

삶에서 축복인지 고난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의 샘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요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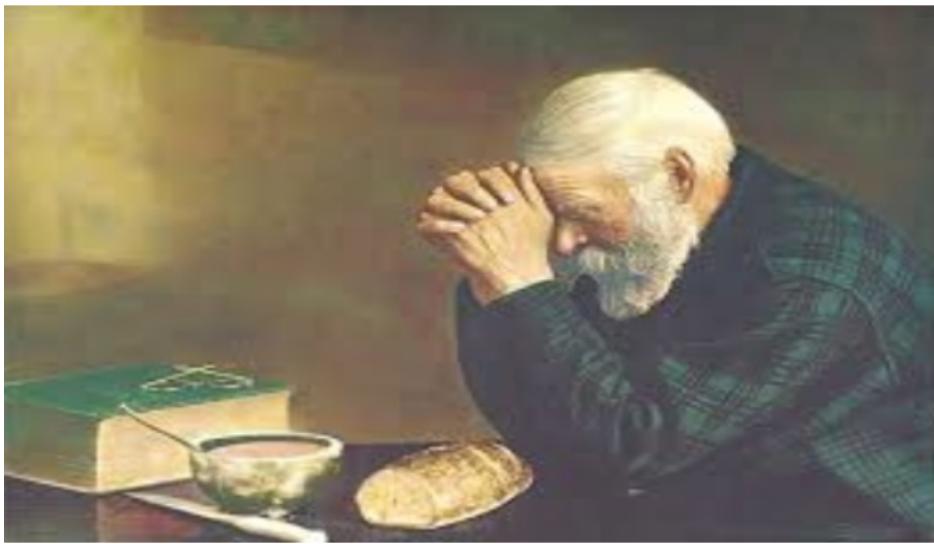
이 묵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요함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궁핍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부요함은 늘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채울수록 또 다른 욕망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요함과 궁핍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잘 알려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 (Rhoda Enstrom Nyberg; 1917~2012)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런 유화작품입니다.



잠시 이 그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란 무엇일까요? 사실 빵 하나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IMF가 아닐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한국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잠시 한국학생들의 학비를 유예해 주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도움 받는 것이 없으니,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게 어떤 어려움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학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학의 기회와 풍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 비한다면 그것은 궁핍함이 아니라, 누리던 여유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짊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일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잠시 불편함을 참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빵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노인의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저런 감사가 있다면 ‘부요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면 말입니다.

세상 것이 지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부요함’은 세상과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그 부요함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이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능력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학 2022년 4월호에 실린 글을 소개합니다.

신성욱 교수님의 페이스북에서 ‘풍선찾기’라는 글을 읽었다.

“한 교수가 모든 학생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풍선을 불고 그 것에 자신들의 이름을 쓴 후 복도에 던졌습니다. 교수는 모든 풍선을 섞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풍선을 찾도록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풍선 찾기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기 풍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아무 풍선이나 하나씩 집은 후 풍선에 적힌 이름의 학생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5분 안에 모든 학생이 자신이 풍선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풍선들은 행복과 같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도 또한 찾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기 바란다.

‘부딪치기만 해 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걸리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13절 말씀.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부요함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벧후1:4)이라면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던 요한복음 속 사마리아 여인이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의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요 7:38) 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요함의 원천, 풍성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챔버스의 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바다의 모든 마지막 모래알과 가장 먼 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챔버스가 습관시리즈로 택한 베드로후서 1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4)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1:5,7)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1:8)

풍성하고도 부요한 삶을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로 인한 자기연민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묵상대로 되지 않는 매일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며 순종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최상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